

시연施連칼럼

고려를 향한 안동인 권초와 김자수의 불사이군 정신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고려(高麗) 말을 살았던 김자수(金自粹)와 권초(權軺)는 안동(安東)에서 태어나 개경(開京)에 진출,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 삼품(三品) 이상 벼슬에 올랐지만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남행길을 택한 것과 조선의 임금이 무려 세 차례 이상 당상관 이상 벼슬을 내렸지만 생목숨을 걸고 출사하지 않은 점이 같다.

안동(安東)에서 개경(開京)으로, 개경(開京)에서 안동(安東)으로 오려면 문경새재를 길을 걸었던 점도 같았지만 김자수(金自粹)는 교지 한 장에 생목숨을 꺾었고 권초(權軺)는 은거지에서 약사발이 올 날만 기다리다 생을 마친 점이 다를 뿐이다.

고려(高麗) 말 친시문과(親試文科), 임금이 직접 출제하고 급제자를 선택에 장원급제를 한 안동인(安東人) 김자수(金自粹, 1351~1413)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였다.

그 즉시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며 인끈을 동현(東軒)에 매달아두고 고향(故鄉) 안동(安東)으로 돌아왔다. 고려(高麗)의 절은 문신(文臣)이 필요했던 조선(朝鮮)은 김자수(金自粹)에게 대사헌(大司憲)을 제수했으나 김자수(金自粹)는 교지를 받고 침묵해 버렸다.

왕위(王位)에 오른 이방원(李芳遠)이 김자수(金自粹)에게 형조판서(刑曹判書) 자리까지 내리 세 번을 불렀다. 세 번째 부름에선 가족(家族)의 안위(安危)를 걱정하는 부전지까지 따라붙은 것을 보고 상촌공(桑村公) 김자수(金自粹)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적(直感的)으로 알아차렸다.

아들에게 관(棺)을 지고 따르도록 한 상촌공(桑村公)은 정몽주(鄭夢周)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京畿道) 광주에 가서 일장통곡을 하고 개경(開京)을 향해 세

번 절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명(絕命)의 길을 택했었다.

상촌공(桑村公)의 묘소(墓所)와 사적이 고향 안동(安東)에 있지 않고 자신이 마지막 벼슬살이를 했었던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유가 됐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기록된 험자였다.

호(號)가 상촌(桑村). 고려말 권근, 이집, 황희와 함께 사촌(四寸)으로 불릴 만큼 석학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여성(易姓) 혁명에 의해 쓰러진 절신이 됐다.

-친시문과(親試文科), 약관에 급제한 권초의 이신별군(以臣伐君) 혼획-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진 1377년 공민왕 6년 급제)처럼 약관(弱冠)의 나이에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한 권초(權軺)는 고려(高麗)의 절은 문신을 달랠 인재가 필요했던 조선(朝鮮)의 3대 임금 태종(太宗)이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과 북백(北伯, 학경도관찰사), 하삼도경차관(下三道敬差官, 전라총청 경상도를 일컫는 말, 건국초기 민정을 살폈던 어사(御史)와 같은 직책) 등 무려 다섯 차례나 내린 당상관(堂上官) 벼슬을 물리치고 예천 염송산에서 죽음의 사약이 올 날을 기다렸다.

호(號)는 송고(松皋), 휘(諱)는 초(軺)다.

고려 후기 감찰규정(監察糾正)이었던 문정공(文靖公 휘(諱) 회정希正, 후일 조선 세종 때 좌의정左議政으로 추증)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언양김씨(彥陽金氏, 부父 휘(諱) 가기可器, 상봉대부常奉大夫 판도총랑판圖總郎 김해부사金海府使) 사이에서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셋째 형 문경공(文景公 휘(諱) 진진, 고려 우왕(王) 3년 1377년 20살 문과급제/조선 세종 때 좌의정)이 고려 공민왕(恭愍王) 6년(1357)에 태어났으니 두 살 터울로 치면 1363년 어간 낙동강(洛東江)의 큰 물길이 모이는 안동 동문(東門) 밖 송천(松川)이나 부친(父親), 문정공(文靖公 휘(諱) 회정希正, 고려 감찰규정(監察糾正)이 관직에 있었던 개경(開京)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고(松皋)은 네다섯 살 때 글을 깨우쳤다고 한다.

마음을 오갈 때도 서책(書冊)을 가슴에 품고 다녔는가 하면 한번 본 시문(詩文)은 놓치는 일이 없었다. 충년(沖年, 열 살을 달리 부르는 말)이 되었을 즈음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이해했다고 하니 학문적(學問的) 천재성을 짐작할 수 있다.

조부(祖父)이셨던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휘(諱) 용일用一 고려 충숙왕忠肅王)이 일찍부터 큰 학재(學才)가 될 것으로 보고 책장에 빈틈이 없도록 중국에서 가져온 서책으로 채워 주셨다고 한다.

고려 34대 임금 공양왕(恭讓王) 때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 종삼품從三品)에 이르렀다. 송고(松皋公)의 이 같은 벼슬길은 고려말을 넘지 못하고 부러진다. 이때가 안타깝게도 서른 살을 넘기지 않았을 시기다.

송고(松皋公)의 지조론(志操論)과 달리 고려말 반대의 길을 걸었던 황희(黃喜, 1363!~1452, 1389년 급제)와는 극명하게 갈라진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황희(黃喜)의 고려말 관직은 별장(正七品)이어서 판제용감사(正三品) 이셨던 송고(松皋公)보다 한참이나 떨어졌다.

자형(姊兄) 백죽당(柏竹堂, 배상지(裴尚志), 두문동 72원 이조판서, 경광서원 배향) 공과 큰 형 판도공(版圖公, 휘(諱) 곡(穀)에게 “신기神器, 즉 임금의 자리가 이미 옮겨갔으니 마땅히 은둔할 뿐이다.(신기기이 아배당둔神器既移 我輩當遷)”이란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개경(開京)에서 남행길에 올라 예천에서 멈춘 것이 자신의 의 생(生)을 놓는 땅이 됐다.

예천 피아골 염송산(濂松山)을 송도(松都)를 둘러싼 염송산을 생각한다는 뜻의 염송산(濂松山)으로 고쳐 부르며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송고(松皋公)이 기절(氣節, 기개와 절조)을 지키고 살았던 마을 이름이 지금껏 절동(節洞, 예천 군 지보면 피아골)이라 부르는 것도 기절(氣節)을 지키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恭讓王)이 1392년 고려라는 국호를 내리고 강원도(江原道) 간성으로 유배길에 오르는 시기, 포은(圃隱)은 55살, 목은(牧隱)은 64살, 애은(隱隱)은 39살이었지만 예천 피아골에서 이신별군(以臣伐君),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적(精神的) 신념(信念)을 놓지 못하고 은거(隱居)에 들어간 송고(松皋公)은 서른 살을 넘지 않았던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다.

문과(文科) 급제(及第) 한 정년이 갖기 쉬운 사회적 욕심(社會的慾心)을 버리고 고려의 신하로 남기 위해 은거(隱居)의 길을 택한 송고(松皋公)를 두고 후인들은 조선의 백이숙제로 불렀다.

난 여행에서 만다라를 접하게 되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모든 것의 균원을 그려낸다는 만다라의 개념을 통해 빛에 대한 고찰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결국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이기에 인간 자체에 대한 균원적 고찰이 필수적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와 빛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한 쪽에 대한 탐구로 말미암아 다른 쪽에 대한 궁금증 역시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렇기에 인간이 내던져진 현실 세계와 그 속의 인간을 넘어서서, 물질 이전의 모든 것의 균원이 되는 이상 세계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며, 두 세계의 공존을 빛으로서 그려내고자 한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빛이 바로 이상 세계의 본질로서 자리하는 빛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상 세계의 균원이자 동시에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빛을 그려내고 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와 내면의 영혼이라는 층위에서 표현할 수 있다. 내면과 외면, 육체와 영혼, 현실과 영성, 두 극단의 연결을 통해서 인간은 그토록 갈구하던 만물의 이치와 균원에 닿을 수 있고 비로소 그 실존적인 공허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다만, 내연과 외연의 연결만이 전부는 아니다. 안과 밖의 순환은 이를 관통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선형성을 만나게 되며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생각한다. 24시간이라는 하루들의 순환이 모여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구성한다.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이 내면의 균원을 향한 걸음을 이어갈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8>



권갑현 편집위원장

죽와집(竹窩集)

<죽와집>은 권상규(權相奎, 1829~1894) 공의 시(詩)와 산문(散文)을 모은 것으로 6권(卷) 3책(冊)이다.

공의 자(字)는 경문(景文)이고 죽와(竹窩)는 호(號)이다. 부친은 권수(權洙, 1789~1871, 호 오곡梧谷)이고 모친은 진주하씨(晉州河氏)로 하계청(河繼淸)의 딸이다.

이다. 복야공파로 시조후 31세이다. 밀양(密陽) 부북(府北) 위양리(位良里)에 거주하였다.

성재(惺齋) 허전(許傳, 1797~1886)과 정현(定軒) 이종상(李種祥, 1799~1870), 학서(鶴西) 이상선(李相善, 1813~1891)의 문인이다.

35세 때인 1863년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39세 때인 1867년에 잠깐 성균관에 입학하였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43세 때인 1871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복이 끝난 뒤 벗들이 과거(科擧)에 응시하기를 원하자 공이 이르기를 “입신양명(立身揚名)은 부모를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며, 과거응시를 포기하고 책을 읽고 자신을 수양하며 후학(後學)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다.

삼종아우 권상호(權相祜, 1840~1893)와 함께 선조인 학산공(鶴山公, 권삼변(權三變, 1577~1645)의 재실(齋室)을 중창(重創)하고 서적(書籍)을 많이 모아 집안 자제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삼았다. 이때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찾았다는 자가 많았다.

또 집 뒤 대산(大山)의 선영(先塋) 가까이에 작은 집을 짓고 죽와(竹窩)라고 편액을 걸고 날마다 거처하며 <주자서(朱子書)>와 <퇴계집(退溪集)>을 강독하면서 세상일을 멀리하였다. 때때로 시(詩)를 지어 뜻을 보이니 당시의 선비들이 많이 화운(和韻)하였다.

향산(鷺山) 이만도(李晚燾, 1842~1910)가 행장을 짓고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 1825~1912)가 비문을 지었다.

<죽와집>은 1961년에 손자 권태길(權泰吉, 1895~1976)과 증손자 권영백(權寧伯, 1928~?)이 편집하여 석판본(石版本)으로 간행하였다. 제1권은 부(賦)와 시(詩)이고 제2권과 제3권은 시(詩)이다. 제4권은 편지와 잡저(雜著)이다. 제5권은 잡저(雜著)이다. 제6권은 서(序), 기(記), 잡(續), 명(銘), 전장계(箋狀啓), 상량문(上樑文), 죽문(祝文), 제문(祭文), 가장(家狀), 유사(遺事), 부록(附錄)이다. 밭문(徵文)은 손자 권태길, 족질 권중철(權重哲), 증손자 권영백이 썼다.

다음은, 공의 문집 제4권의 잡저(雜著)에 있는 <자경십의(自警十儀)> 중의 8번째로 ‘죽친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의 ‘돈목(敦睦)’이라는 제목의 글을 국역한 것이다.

사람이 조상이 같은 경우는 예컨대 나무가 뿌리가 하나이고 물이 균원이 하나인 것과 같다.

지네라는 별레는 죽음에 이르려도 넘어지지 않는데 이는 떠받치는 밭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는 친족이 있어 지네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니 출생과 초상(初喪) 그리고 근심과 재난에 서로 구제해주는 것이 어떠한가?

정(情)은 친족관계에서 드러나고 친족관계는 상복(喪服)을 입는 데서 드러나며, 상복(喪服)은 참회복(斂衰服)을 입는 형제에서 시작하여 시마복(緇麻服)을 입는 팔촌(八寸) 친족에 이르고, 팔촌인 시마친(緇麻親)에서 십촌(十寸)인 단문친(袒免親)이 되고, 결국에는 상복을 입지 않는 데까지 이르니, 상복을 입지 않게 되면 친족관계가 다한 것이다. 친족관계가 다하면 정(情)도 다하고, 정이 다하면 기쁜 일이 있어도 축하해주지 않고, 근심스런 일이 있어도 위로해주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길거리의 남처럼 된 것이다.

내가 길거리의 남처럼 여기는 사람도 처음에는 서로 형제였으며, 형제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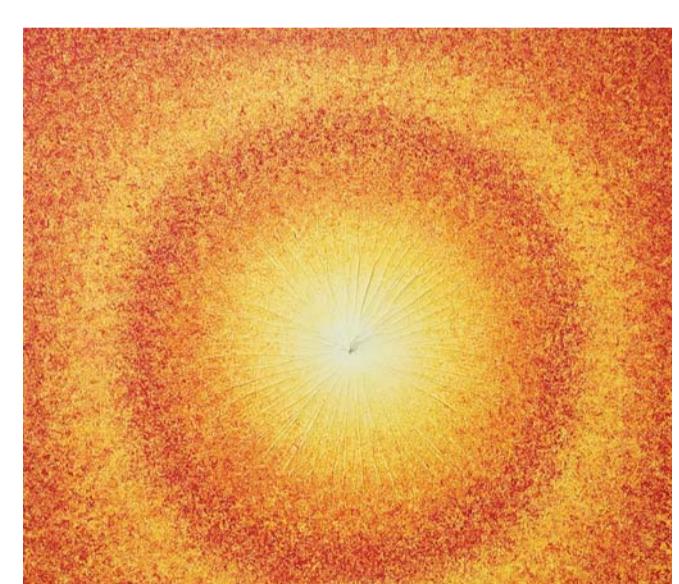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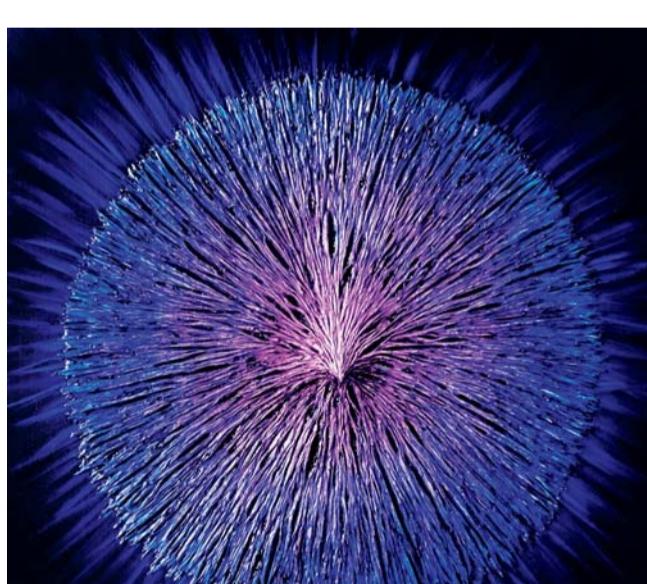
슬프다! 한 사람에서 나온 몸이 나뉘고 나뉘어 길거리의 남처럼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어째서 그런가? 이것은 그 뿌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옛 사람 중에 9대(代)인 18촌 형제와 그 자식들인 10대(代)인 20촌 형제가 한 집에서 살았던 이가 있었으나 바로 옛날 중국의 장공(張公)이다.

비록 꼭 참고 서로 상관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만, 진실로 그 선조를 사모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정성이 태고난 성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누가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 중에 혹 형제사이에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니 이는 도대체 오직 무슨 마음인가? 같은 일가끼리 사이좋고 화목(和睦)하게 지내는 뜻을 중시(重視)하여 이를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장공(張公)의 죄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敦睦
夫人之同祖者如本之同根水之同源也百足之蟲至死不仆者以其扶之衆也人之於族也非特百足也其死生患難相救相濟爲如何哉若之情見於親親見於服始於哀而至於缌縫憂不吊而塗人也吾所視空無服則親盡而情盡豈不慶憂不吊而塗人也吾所視空人者其初兄弟也兄弟其初一人之身也悲夫一人之身分而至雖曰恐而不較苟非其慕先孝思之誠出於性植其孰能之念之人或有兄弟不相容者抑獨何心講求敦宗睦族之義心焉不急則庶免張陳之罪人也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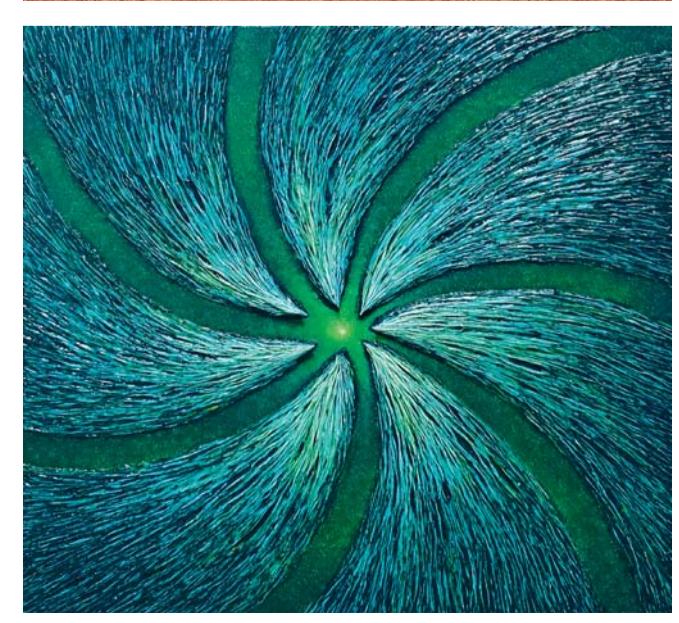


수 있다. 내연과 외연을 관통해 나아가는 시간은 빛과 함께 안과 밖을 잇고 있는 더욱 긴 통로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24시간이라는 순환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을 빛으로 전환해 화폭에 옮기면서 이를 관통하며 흘러가는 선형의 시간을 중앙의 마띠에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현재는 이 두 주제의 강한 연결고리들을 찾아가며, 실제와 유리되지 않고 함께하는 근원(이상)에 대한 탐구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 인간의 본질에는 빛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근원에 대한 탐구를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다만, 자칫 지나친 형이상학으로 치우칠 수 있는 빛과 그 근원에 대한 고찰을 함과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 본질이라는 점을 그 근간에 두어 허공에 떠다니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고자 한다.



작가 노트

청마 권민장



인간 본질에 존재하는 것이 빛이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의 근원에 존재하는 빛을 추상적인 개념보다,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빛의 개념과 성질로 표현해 누구나 편안하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그렇기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원형의 빛 형태로 작품을 그려내며